

혁신도시 전력그룹사 '탄소중립 시대' 선도

전력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최초 반영...내년 1월1일 시행 한전KPS, 광양제철소 노후발전 개선 재수주...저탄소 전환 기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전력그룹사가 2025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부담이 큰 발전기는 발전 우선순위가 기존보다 불리하게 전환돼 발전량이 감소하는 방식이다.

전력시장에 환경급전 제도가 연계된 건 처음이다. 전력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기 변동비에 반영하는 제도 시행을 환경급전 도입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친환경 발전기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전연료 세계개편 지원' (2019년 4월)과 '탈황·탈질 등 환경개선비용 변동비 반영' (2019년 8월)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5년 배출권시장 개설 이후 현재까지 발전사가 전력 생산을 위해 지출한 배출권 구매비용은 전력시장 외에서 별도로 정산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라 할지라도 연료 도입비가 저렴한 경우 발전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환경급전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발전 우선순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거래소는 연말까지 7개월 동안 제도 시행을 위한 모의 운영을 벌이고 있다.

앞서 9일 전력거래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전환 및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재생에너지 잠재량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탄소중립 대응 기술 분야 등에서 기술·정보 교류를 펼친다.

전력거래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재생에너지 지역별 잠재량 관련 데이터 공유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실행력과 이행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기법 관련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전량 예측 정확도 고도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무탄소 신기술을 교류하며 탄소중립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전KPS는 노후 발전소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있다.

한전KPS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기력1발전 합리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데 이어 최근 기력2발전 사업을 수주했다. 기력2발전 합리화사업은 380

억원 규모이다. 한전KPS는 기력2발전의 100MW급 2기의 성능개선공사를 이달부터 오는 2023년 7월 까지 약 1년 8개월간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다.

발전소 합리화사업은 한계수명에 도달한 발전설비의 성능을 복원시키고 터빈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성능개선공사를 말한다.

한전KPS는 지난해 코로나 인하여 자재 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 공장검수 등 새로운 사업추진방식을 도입해 광양제철소 기력1발전 합리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노후 발전설비의 성능과 효율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탄소배출 저감에 따른 저탄소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한전KPS 측은 기대했다.

한전KPS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경영을 펼친 성과를 인정 받아 지난 10일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시상식'에서 DJSI 코리아 상용서비스 공급업 부문 13년 연속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지수는 지난 23년 동안 매년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서부터 지배구조,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측면을 종합평가한다. 올해는 전 세계 2544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국내에서는 DJSI 월드에 21개 기업, DJSI 아시아-퍼시픽에 32개 기업, DJSI 코리아에 43개 기업이 각각 포함됐다.

한전KPS는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2019-2020 한전KPS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고 누리집에 공개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7월 전력산업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전력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탄소중립전략처와 지속성장전략처를 두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조만간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자는 취지로 '캡코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한다. 한전은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고 전력그룹사, 외부 전문가와 연대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력거래소,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3년 연속 유일

한전·한전KDN 등 5곳 상승 종합청렴도 1등급 한 곳도 없어

전력거래소가 올해 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에서 최근 3년 동안 2등급을 유지한 59개 기관 가운데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 등급이 오른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기관은 한국전력과 한전KDN,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근 3년 동안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해왔다.

전력거래소와 함께 2등급에 오른 기관은 한국전

■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 : 2020년 대비 등급 변경

종합청렴도	기관명
1등급	한국전력(▲1) 한전KDN(▲1)
2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 전력거래소(-)
3등급	한전KPS(▼1) 한국콘텐츠진흥원(▲1)
4등급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등급	한국문화예술회관(▼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력, 한전KDN,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모두 전년보다 한 계단 등급이 올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년보다 등급이 하나 오른 3등급을 받았다. 한전KPS는 올해 3등급으로 한 계단 떨어졌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개 기관은 전년과 같은 4등급에 머물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외부청렴도가 3등급인 반면, 내부청렴도는 최하인 5등급을 맞았다.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는 전년보다 한 계단 내린 5등급으로 평가됐다. 내외부 청렴도 모두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다.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빛가람 도란도란 클래스' 성공 개최



지난 10일 마무리한 '빛가람 도란도란 클래스' 참가자들이 석고방향제와 열쇠고리를 만들고 있다. (사학연금 제공)

12개 강좌 주민 330명 참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빛가람혁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1~10일 열흘 동안 진행된 '빛가람 도란도란 클래스' 강좌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문화 강좌 '도란도란 클래스'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6곳이 참여한 '빛가람 사회적기치실무협의회'가 기획했다. 참여 기관은 사학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력거래소 등이다. 전남도와 나누시는 '지역발전 지원사업' 예산을 보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번 강좌에는 지역주민 330여 명이 참여해 12개 가을학기 수업을 들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당단에 서서 석고방향제 만들기,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꽃떡 케이크 만들기, 캔들리스 만들기, 반려 식물 키우기, 태양광 교실 등을 진행했다.

도란도란 클래스는 수강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매번 인기를 더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각자 상품을 홍보할 기회를 얻어 호응이 높다.

주병원 이사장은 "도란도란 클래스가 빛가람혁신도시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혁신도시 6개 기관, 유엔세계식량계획에 기부금 전달

aT·농어촌공사·인터넷진흥원 등 기아퇴치기금으로 운용될 예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포함한 나주 혁신도시 6개 기관이 14일 '먹거리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한 기부금을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전달했다.

참여 기관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력거래소,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개 기관이다.

기부금은 WFP를 통해 전 세계 굶주리는 인구를 지원하는 기아퇴치기금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 9월 WFP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비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절감된 비용으로 전 세계 굶주리는 사람을 돕는 '제로웨이스트 제로형기' 캠페인을 실천해 왔다.

공사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기반으로 하는

먹거리 소비 부문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부문까지 아우르는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지난 9월 선포한 이래 대국민 확산에 나서고 있다.

김춘진 사장은 "개인과 기관의 먹거리 탄소중립을 위한 자치만 착한 실천이 모여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릴 수 있다"며 "우리가 함께하는 노력이 지역상생과 환경경영의 큰 발걸음이 되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